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 누가 세리를 끝났다 했는가

## 34개월만에 우승 화려한 부활

### LPGA 통산 25승 … 통산상금 5위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선구자' 박세리(33)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개인 통산 25승째를 거뒀다.

박세리는 17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 골프장(파72·6646야드)에서 열린 벨 마이크로 LPGA 클래식(총상금 130만달러·14억9000만원)에서 연장전 세 번째 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박세리는 2007년 7월 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에서 정상에 오른 뒤 2년10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다시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19만5000달러. 3라운드까지 13언더파 203타로 공동 선두였던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브리타니 린시컴(미국)과 함께 4라운드를 시작한 박세리는 악천후 탓에 3번 홀까지 치른 뒤 경기가 중단됐다. 이때까지 상황은 박세리가 보기 1개로 한 타를 잃었고 페테르센은 이븐파, 린시컴이 버디 1개를 잡아내며 단독 선두로 나서 있었다.

박세리는 오히려 이날 한 타를 줄인 이지영(25)과 함께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3위로 밀려난 상황이었으나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았던 덕에 4라운드가 아예 취소되는 행운을 누렸다. 3라운드까지 1위였던 페테르센·린시컴과 함께 연장 승부를 시작한 박세리는 결국 세 번째 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정상에 우뚝 섰다.

비가 계속되는 날씨 속에 402야드로 긴 편인 18번 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에서 먼저 페테르센이 2차 연장에서 탈락했다.

린시컴과 다시 18번 홀에서 만난 박세리는 티샷이 벙커에 빠지는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두 번째 샷을 홀 3m 안쪽에 붙여내며 승기를 잡았다. 게다가 린시컴은 두 번째 샷이 홀 앞쪽 벙커에 들어가며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 린시컴이 힘겹게 파로 막아내며 마지막 저항을 했지만 박세리는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성공, 신지애(22·미래에셋) 등 '세리 키즈'들의 축하 샴페인 세례를 받으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번 대회의 우승 상금 19만 5000달러를 보탠 박세리는 시즌 상금 23만 7000달러가 돼 7위로 껑충 뛰었다. 역대 통산 상금에서도 1083만달러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카리 웹(호주)·로레나 오초아(멕시코)·줄리 잉스터(미국)에 이어 5위로 올라섰다.

박세리는 지금까지 LPGA 투어에서 연장전 6번을 치러 모두 이기는 '연장 불패' 신화도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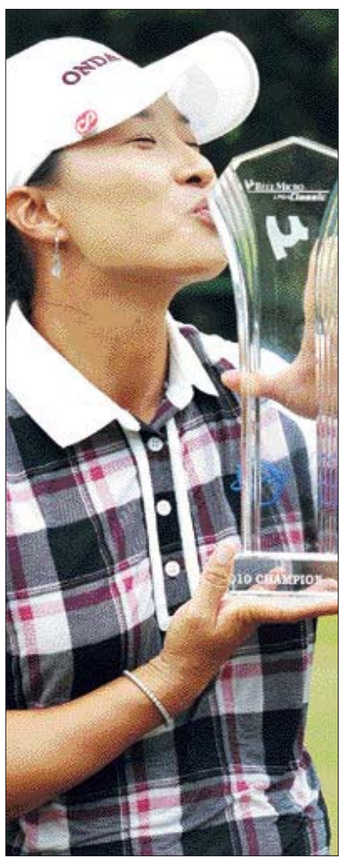
또 이날 세계 4위였던 페테르센이 우승했더라면 신지애의 세계 1위 자리도 위협받을 뻔했으나 '맏언니'의 우승으로 '세리 키즈'의 대표 주자 신지애의 1위 자리도 유지하게 됐다. 신지애는 3언더파 213타로 공동 26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세리키즈'의 샴페인 축하

박세리가 17일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벨 마이크로 LPGA 클래식에서 우승을 확정 짓고 나서 후배선수들로부터 맥주와 샴페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힘든 시간 통해 배웠다 인내심이 필요하단 걸"

■ 박세리 우승 소감



1998년 7월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박세리(33)는 연장 혈투 끝에 정상에 올랐다.

당시 4라운드를 끝내고도 제니 추아 시리폰과 승부를 내지 못해 18홀 연장, 그것도 모자라 2개 홀 연장을 더 치른 끝에 값진 생애 첫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우승의 감격을 맛봤던 박세리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연장전에서 패한 적이 없다.

17일(한국시각) 끝난 LPGA투어 벨 마이크로 클래식에서도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브리타니 린시컴(미국)과 연장전을 펼쳐 세 홀 연장 끝에 개인 통산 25승째를 채웠다.

25승 가운데 6승이 연장전에서 따낸 것이고 투어에서 연장전 성적이 6전 전승으로 투어 역사상 최고 승률이다.

벨 마이크로 클래식 우승을 차지한 뒤 기자 회견에서 플레이오프 불패 행진의 비결을 묻는 말에 박세리는 "어차피 연장에 가면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다. 그래서 연장에 가면 더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샷도 더 잘 맞는다"며 "무패 행진에 대한 압박감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기록을 의식해서 된 것은 아니다. 가능한 이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박세리는 "최근 몇 년 힘든 때가 많았다. 다시 예전의 기량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런 시간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다. 요즘은 편안한 마음으로 치다 보니 정말 행복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최근 슬럼프에 대해 "다시 우승을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는 박세리는 "결국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 우승은 왜 내가 앞으로도 계속 연습을 하고 노력해야 하는지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연장 세 번째 홀에서 벙커샷을 통해 승리를 일궈낸 것에 대해 "오히려 벙커에서 더 시야도 잘 잡히기 때문에 편했다. 물론 일부러 벙커로 들어가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자신감이 있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아담 스콧, 36홀 레이스 우승

### PGA 발레로 텍사스 오픈

아담 스콧(호주)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발레로 텍사스오픈 최종일 마라톤 레이스의 승자가 됐다.

스콧은 17일(한국시각)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TPC의 AT&T 오크 코스(파72·752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36홀을 돌며 11타를 줄여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

스콧은 2008년 바이런 넬슨 클래식 우승 이후 2년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통산 7승을 기록했다. 우승 상금은 109만8000달러.

이번 대회는 2라운드가 폭우로 하루 순연됨에 따라 마지막날에는 3·4라운드가 연이어 열렸다. 프레드릭 야콥손(스웨덴)이 1타 뒤진 2위(13언더파 275타)에 올랐고 시즌 2승을 거둔 어니 엘스(남아공)도 막판 맹렬한 추격전을 펼쳤지만 12언더파 276타로 아론 배들리(호주) 등과 함께 공동 3위로 마쳤다.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는 3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치며 상위권 진입을 노렸으나 4라운드에서 1타를 줄이는데 그쳐 공동 17위(7언더파 281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 문유라 3관왕

### 전국여자역도선수권

문유라(20·경기도체육회)가 제24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문유라는 17일 강원 원주 엘리트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여자 63㎏급에서 인상 101㎏, 용상 128㎏, 합계 229㎏을 들어올려 세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 체급의 간판인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용상 4위 김수경(25·제주도청)은 인상 101㎏, 용상 127㎏, 합계 228㎏을 기록해 모두 2위가 됐다.

문유라와 김수경은 중량이 인상 104㎏(문유라), 용상 132㎏, 합계 233㎏(이상 김수경) 등 한국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다. 조이삭(부산에너지과학고)은 앞서 벌어진 남고부 56㎏급에서 인상 109㎏, 용상 134㎏, 합계 243㎏을 들어 올려 용상과 합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한솔(남녕고)도 남고부 62㎏급에서 인상 120㎏, 용상 160㎏, 합계 280㎏을 기록해 용상과 합계에서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 호랑이 5·18 기점 재도약 나선다

## 마운드 콜론·이대진 가세 부진한 타력 뒷받침

## 안방서 롯데·넥센과 대결… 승수쌓기 절호 기회

그라운드의 빈틈을 채워라.

KIA 타이거즈가 주말 최하위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2연패를 당하고 돌아왔다. 주중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로 2승1패를 거두었던 KIA는 주말 1승을 추가하는데 그치며 20승20패로 5할 승률에 머물고 있다.

타격의 부활 조심 속에 하위팀들과의 맞대결이 이뤄지면서 승률을 높이기에 최적의 한 주였지만, 4월 KIA의 발목을 잡았던 야수진들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재부각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신예 투수들의 등용문'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KIA는 12일 넥센의 2년차 투수 고원준에게 프로데뷔 첫 승을 안겨줬다. 고원준은 6이닝 동안 8개의 안타를 얻어맞았지만 사사구 없이 9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는 등 1실점의 투구로 승리투수가 됐다.

3번 타자의 부재도 컸다. 지난주 안치홍·김원섭·이종환이 3번 타자로 선발출장했지만 세 명의 선수는 3번 자리에서 2개의 안타를 만드는데 그쳤다.

20타수 2안타 1할의 타율을 남긴 3번 타자에 이어 부동의 4번 타자 최희섭도 감기몸살로 병원에 다녀온 뒤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5월 초반 KIA의 연승행진을 주도했던 최희섭의 6경기 타율 역시 0.150에 그쳤다. 삼진은 9개를 당하는 등 확고한 3번 타자의 부재 속에 클린업트리오의 힘이 빠졌다.

외야진들의 불균형도 눈에 띈다. KIA 외야수는 이종범·김원섭·이용규·나지완·이종환·신종길 등 6명이다.

이용규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공·수에서 맹활약하고 있지만 나머지 외야진들의 움직임이 좋지 못하다.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이종범과 김원섭의 공격력이 주춤한 가운데 믿었던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며 외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나지완·이종환·신종길은 수비보다는 공격력에 기대를 하는 선수들이다. 그러나 거포 나지완이 이렇다할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종환은 1군 복귀전에서 데뷔 홈런을 터트리는 등 눈길을 끌었지만 아직 확고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상의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종길도 수비 불안으로 입지가 애매하다.

KIA는 주중 군산 나들이에 나서 롯데와의 경기를 갖은 후 광주 안방에서 넥센과의 주말 대결을 벌인다.

5월 순위 싸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롯데와 넥센과의 대결. 콜론과 이대진의 가세로 마운드 전력보강을 이룬 만큼 야수진들의 빈틈 메우기가 이번주 KIA의 승수를 좌우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중간순위 (17일 현재)

| 순위 | 구단 | 승 | 패 | 무 | 승률 | 연속 |
|---|---|---|---|---|---|---|
| 1 | SK | 29 | 11 | 0 | 0.725 | 1승 |
| 2 | 두산 | 24 | 14 | 1 | 0.615 | 1패 |
| 3 | 삼성 | 22 | 19 | 0 | 0.537 | 1패 |
| **4** | **KIA** | **20** | **20** | **0** | **0.500** | **2패** |
| 5 | 롯데 | 18 | 24 | 0 | 0.429 | 1패 |
| 6 | 넥센 | 17 | 24 | 0 | 0.415 | 1승 |
| 7 | LG | 15 | 22 | 1 | 0.395 | 1승 |
| 8 | 한화 | 15 | 26 | 0 | 0.366 | 2승 |